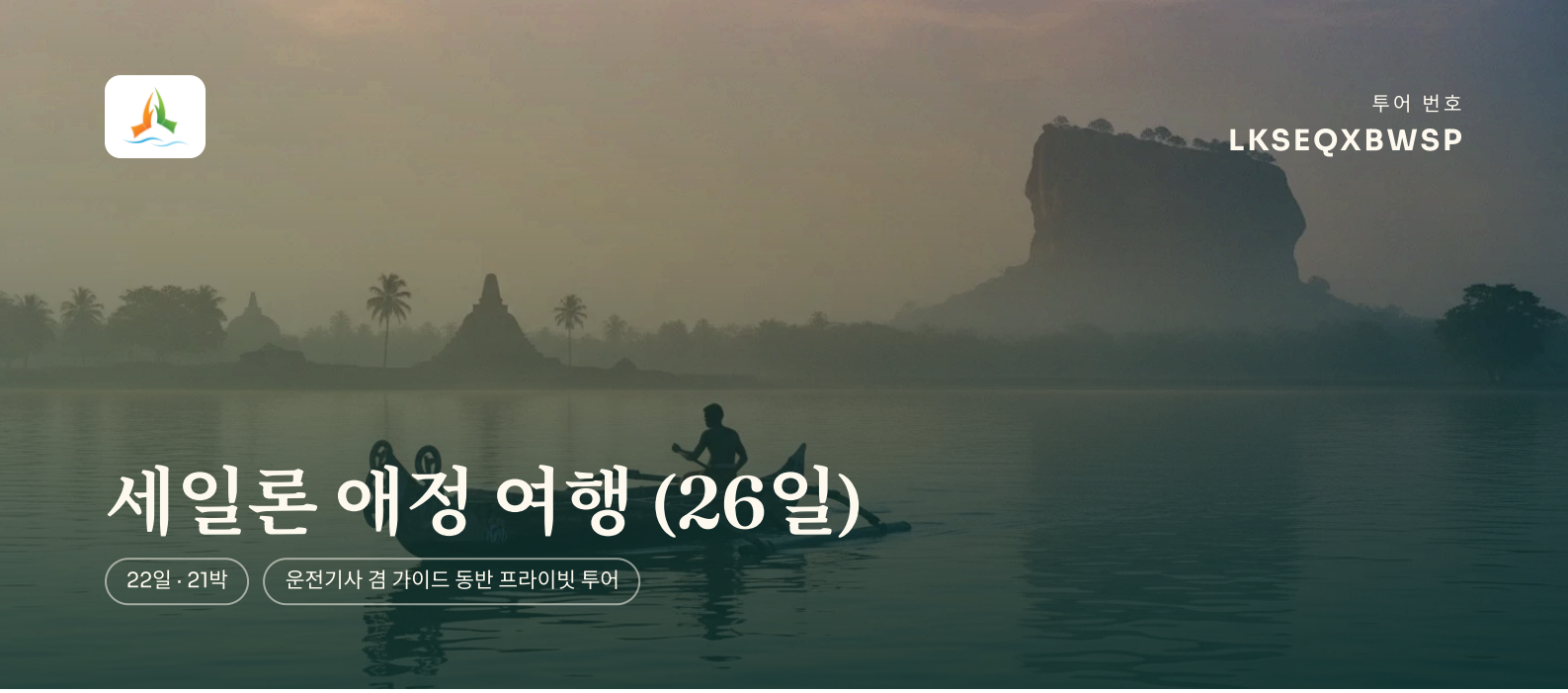


투어 번호
LKSEQXBWSP

세일론 애정 여행 (26일)

22일 · 21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26일 투어는 남서쪽 해안에서 시작하여 콜롬보 근처로 돌아오는 섬 전체를 순회하며, 해변, 야생동물 공원, 산악 지역, 문화삼각지의 고대 도시, 그리고 북쪽의 잔프나 반도를 포함합니다. 여행은 개인 전용 운전기사 가이드의 차량으로 진행되며, 경로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2박 또는 3박을 할 수 있는 느긋한 속도로 이동하여 명소 사이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정 중에는 히깟두와와 미리사의 해변에서의 시간, 얄라 국립공원의 사파리, 엘라와 누와라 엘리야 주변의 하이킹 및 경치 좋은 기차 여행, 캔디의 문화유산 명소, 시기리야, 폴로나루와, 담불라, 아누라다푸라의 고대 도시, 트린코말리 주변의 해안과 사원, 잔프나의 힌두교 사원과 섬 성지가 있으며, 콜롬보와 네곰보를 거쳐 남쪽으로 돌아옵니다. 여행객들은 하나의 연속적인 여행에서 식민지 역사, 불교 및 힌두교 유산, 고지대 경치, 국립공원 및 해안선의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투어는 국내에서 운영되며, 전담 운전기사 가이드가 공항 이동, 운전 및 각 정거장 간의 일상적인 물류를 담당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히카두와 & 갈레 (1~3일차)

공항에 도착하면 전속 기사 겸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갈레 남부 주의 해변 휴양 도시 히카두와로 모셔다 드립니다. 산호초로 둘러싸인 해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후, 식민지 시대의 도시 갈레와 주변 해안을 둘러봅니다.

히카두와 비치

산호초로 둘러싸인 바다로 유명한 해변 휴양 도시로, 도착 후 체크인을 하고 저녁 시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갈레 구 식민지 도시

포르투갈인이 세우고 이후 네덜란드인이 증축한,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인 갈레 요새를 둘러봅니다. 요새 안의 박물관과 등대를 구경하고, 네덜란드식 이름이 붙은 자갈길을 걸어봅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한두누고다 차 공장

버진 화이트 티 공장으로도 알려진 이곳에서는 유명한 버진 화이트 티가 손을 대지 않고 채엽·가공됩니다. 차의 역사를 배우고, 차와 초콜릿 케이크를 곁들인 시음회에 참여하며, 기념품으로 찻잎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루마살라

갈레에서 동쪽으로 3킬로미터 떨어진 언덕으로, 흰색 불교 다고바가 그 정상을 장식하고 있으며 우나와투나 해변의 랜드마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누만이 드로나기리 산을 옮기다 떨어뜨렸다는 스리랑카 내 다섯 곳 중 하나로 전해지며, 시타가 섬에 머물렀다는 전설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스틸트 피셔맨(장대 어부)

코갈레 해안을 따라 장대 위에 걸터앉아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을 지켜보세요. 수 대에 걸쳐 이어져 온 이 전통 어업 방식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부들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4 미리사 (4~5일차)

웰리가마 만 동쪽 끝에 위치한 미리사 해변에서 이틀간 여유롭게 머무르며, 모래사장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패럿 록, 코코넛 트리 힐 등 인근 명소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미리사 비치

웰리가마 만 동쪽 끝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해변으로, 곡선으로 휘어진 모래사장 덕분에 야자수로 둘러싸인 외딴 섬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에서 이틀 동안 느긋한 시간을 보냅니다.

Ji-Elle · CC BY-SA 3.0

Day 6 얄라 (6~7일차)

얄라로 향하는 길에 거북이 부화장과 독특하게 황량한 우상고다 지형을 둘러본 후, 얄라 국립공원에서 하루 종일 사파리를 즐깁니다.

거북이 부화장

스리랑카 해안을 찾는 멸종 위기의 바다거북 다섯 종에 대해 배우고, 레카와 거북이 부화장에서 진행되는 보존 활동을 알아봅니다. 낮 동안 거북이를 관찰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기회도 있습니다.



우상고다

유독성 중금속을 함유해 특정 작은 식물만 자랄 수 있는 사문암 때문에 나무가 거의 없는 해안 지대입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곳의 황량함은 하누만의 불타는 꼬리, 그리고 라바나 왕이 이 고원을 전차의 활주로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A.Savin · FAL



얄라 국립공원

스리랑카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섬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에서 하루 종일 사파리를 즐깁니다. 스리랑카 표범, 야생 물소, 늘보곰, 코끼리 무리를 비롯해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8 엘라 & 누와라엘리야 (8~10일차)

내륙의 고원 마을 엘라로 이동해 사원을 둘러보고 하이킹을 즐긴 후, 경관이 아름다운 기차를 타고 과거 영국인들의 고원 휴양지였던 누와라엘리야로 올라가 식민지 시대 거리를 산책합니다.



부두루와갈라 사원

10세기에 조성된 일곱 개의 불상으로 이루어진 고대 불교 유적지로, 대승불교 계통에 속합니다. 가장 큰 불상에는 원래의 회반죽 가사와 채색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으며, 양옆 조각상 중 하나는 관세음보살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Vishvax (talk) (Uploads) · CC BY-SA 3.0



엘라

차밭과 바위투성이 지형을 걸으며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경을 감상하고, 나인 아치 다리를 건너 독특한 루프형 선로로 유명한 데모다라 기차역에서 여정을 마칩니다.

Dan arndt · CC BY-SA 4.0

엘라 록

약 세 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반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중 하나에 올라 나무누쿨라 산맥과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경을 지나치며, 정상에서는 반다라웰라 산맥, 푸나갈라 언덕, 나랑갈라, 엘라 갭까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



경관 열차 여행

하푸탈레에서 누와라엘리야까지 차밭을 지나는 기차 여행으로, 폭포와 안개 낀 마을, 숲을 지나며 선로 바로 옆으로 아찔한 낭떠러지가 펼쳐집니다.

Chamal N · CC BY-SA 3.0



누와라엘리야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인들의 주요 휴양지였던 고원 마을로, 당시 지어진 오두막과 별장, 저택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리를 거닐고,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을 방문하며, 퀸 빅토리아 공원이나 그레고리 호수에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11 캔디 (11~12일차)

고원 도시 캔디로 향하는 길에 차 공장과 람보다 폭포 전망대에 들른 후, 도시의 사원과 정원, 그리고 전통 공연을 관람합니다.

차 공장 방문

운영 중인 차 공장과 농장을 방문해 실론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는 1824년 중국에서 처음 차나무가 로열 보타니컬 가든으로 들여온 데서 시작된 전통으로, 이후 1852년부터 캔디 인근 룰레콘데라 농장에서 제임스 테일러에 의해 상업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람보다 폭포

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로, 맥우즈 차 농장에서 가이드와 함께 차의 종류와 가공 과정을 배우고, 하카갈라 식물원과 그레고리 호수를 따라 산책하는 일정과 함께 둘러봅니다.

A.Savin · FAL



캔디 전통 문화 공연

불 춤, 검 춤, 북소리에 맞춘 캔디안 댄스 등 스리랑카 전통 공연 예술을 한 시간 동안 감상합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불치사(佛齒寺)

부처님의 성스러운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16세기에 세워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붉은색, 크림색, 검은색으로 채색된 복도를 지나며 조각된 기둥과 황금 불상들을 둘러봅니다.

A.Savin · FAL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은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이 넘는 식물이 자라는 곳으로, 캐논볼 나무와 현수교, 생울타리 미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13 담불라 (13~15일차)

문화 삼각지대의 중심인 담불라를 거점으로, 자연 호수와 향신료 정원, 시기리야 바위 요새와 마을 투어, 고대 도시 폴론나루와,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 담불라 석굴 사원을 둘러봅니다.



셈부왓타 호수

엘카두와 인근에 위치한 자연 샘물로 형성된 호수로, 현지에서는 깊이가 30~40피트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옆에는 자연 용천수로 채워진 수영장이 있습니다.

Sivanandhan Dishanthan · CC BY-SA 4.0



향신료 정원

고수, 고추, 계피, 카다멈, 육두구 등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재배하는 정원을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며 그 쓰임새를 배우고, 전통 방식으로 로티나 커리 파우더를 만드는 요리 시연도 관람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5세기 카샤파 왕이 세운 바위 요새로, 거대한 사자 발 모양으로 꾸며진 입구를 통해 들어갑니다. 유명한 벽화들을 지나 계단식 정원,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 정상의 궁전 유적까지 올라가 봅니다.

Wrobell · CC BY-SA 3.0



시기리야 마을 투어

시기리야 인근의 전통 마을 생활을 체험하는 투어로, 소달구지 타기, 마을 호수에서의 카타마란 사파리, 논길 산책, 요리 시연, 그리고 연잎에 담겨 나오는 가정식 점심이 포함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민네리야 국립공원

5월부터 10월 사이 15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으로 유명한 민네리야에서 세 시간 동안 사파리를 즐기며, 그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고대 도시 폴론나루와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영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주요 수도 유적지입니다.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꽃 목욕탕, 랑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파라크라마바후 왕과 연관된 조각상을 둘러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담불라 석굴 사원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담불라의 황금 사원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벽화와 다섯 개의 주요 동굴에 걸쳐 수백 개의 불상과 신상이 모셔져 있으며, 바깥에는 커다란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16 트링코말리 (16~18일차)

동부 해안의 트링코말리에서는 도시의 사원과 요새를 둘러보고, 닐라벨리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고래 관찰 사파리에 나서고, 피전 아일랜드와 역사 깊은 마을 티리야야를 둘러봅니다.



코네스와람 사원

인도의 시인 성자들에게 찬사를 받은 고대 사원으로, 기원전 15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동굴 성소와 이후 서기 400년경에 조성된 본당을 갖추고 있으며, 벽화를 통해 이곳의 역사를 전해줍니다.

Shamli071 · CC BY-SA 3.0



프레더릭 요새

1624년 포르투갈인들이 자신들이 파괴한 코네스와람 사원의 돌을 가져다 지은 것이 시초이며, 이후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해체되고 재건되었습니다.

AntanO · CC BY-SA 4.0



닐라벨리 해변

황금빛 모래와 야자수, 맑은 바닷물을 자랑하는 스리랑카 최고의 해변 중 하나로, 인근에는 이 땅이 코네스와람 사원에 하사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한 10세기 타밀어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Anton 17 · CC BY-SA 4.0



트링코말리 고래 관찰 사파리

다섯 시간 동안 진행되는 투어로, 대왕고래, 향유고래, 참고래를 만날 기회가 있으며, 자격을 갖춘 전문 해설가가 동행해 종 식별을 돕습니다.

Ji-Elle · CC BY-SA 3.0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

주변에 산호초가 둘러싸인 두 개의 섬으로, 바위비둘기가 번식하는 서식지이자 다양한 산호와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AntanO · CC BY-SA 4.0



티리야야 와타다게

현재는 티리야이라고 불리는 마을로, 한때 타밀 불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부처님이 두 상인에게 머리카락 사리를 전했다고 전해지는 기리하두 세야 불탑과, 마지막 반니야르 족장 중 한 명의 요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19 자프나 (19~20일차)

한때 내전의 중심지였던 북부 반도 자프나 지역에서 도시 자체와 더불어 나가디파와 나이나티부의 섬 사원들을 둘러봅니다.



자프나

섬 북단에 위치한 도시이자 반도로, 날루르, 나이나티부, 마비탑푸람 등 고대 힌두 사원과 네덜란드 요새, 전쟁 기념비, 사라스와티 마할 도서관, 나가디파 비하라, 그리고 자프나의 마지막 왕 칸킬리 1세의 왕궁 터가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나가디파 섬

싱할라인들에게는 나가디파로, 고대에는 마니팔라밤으로 알려진 이 섬은 자프나 북쪽에 위치하며 나가 족과 그들의 뱀 숭배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나티부 나가푸샤니 암만 사원과 나가디파 푸라나 비하라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Wikinamaste · CC BY-SA 3.0



나이나티부 나가푸샤니 암만 사원

적어도 2천 년의 역사를 지닌 힌두 사원으로, 프톨레마이오스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네 개의 고푸람과 여러 만다팜, 사원 전차를 갖춘 드라비다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전 세계에 단 64곳뿐인 샤크티 피담 중 하나로 꼽힙니다.

Wikinamaste · CC BY-SA 3.0

Day 21 아누라다푸라

다시 남쪽으로 이동해, 스리랑카 최초의 주요 수도였던 아누라다푸라의 유적을 하루 동안 둘러봅니다.



아누라다푸라 유적 도시

서기 10세기까지 천 년 이상 스리랑카의 수도였던 곳으로, 광활한 유적지에 탑과 수도원 건물, 연못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때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던 제타와나라마와 스리 마하 보디, 그리고 아바야기리 수도원 유적을 둘러봅니다.

Thisaru Tharuka · CC BY-SA 4.0

Day 22 콜롬보 & 네곰보 (22~24일차)

여행의 마지막은 콜롬보 도심 관광과 공항 근처 네곰보에서의 해변 시간으로 마무리되며, 이후 출국을 위해 이동합니다.



콜롬보 시티 투어

올드 라이트하우스, 옛 국회의사당, 갈레 페이스 호텔과 갈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 사원, 국립 박물관 등 수도의 주요 명소를 비롯해 쇼핑몰과 부티크 상점, 디자이너 매장까지 둘러봅니다.

Gihanud2001 · CC0



콜롬보의 낮과 밤

해변가 파티와 칵테일, 카지노, 늦게까지 문을 여는 부티크 레스토랑 등 콜롬보의 활기찬 면모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Gihanud2001 · CC0



네곰보

오랜 어업 전통을 지닌 서부 해안의 해변 도시로, 황금빛 모래사장과 수상 스포츠, 산호와 해양 생물 사이에서 즐기는 다이빙, 그리고 해안에서 가까운 50년 된 난파선이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cost of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Except for Credit Card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Lakpura® · 요금, 옵션 및 예약: www.lakpura.com/ko/products/ceylon-endearment-26-days
hello@lakpura.com · +94 11 574 7474